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지금이 추경 타이밍…경제위기에 긴축 고집은 방관"

"경제는 타이밍…경기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하면 코스피 5000 시대 열 수 있어"
"성장 기회·결과 나누는 '공정성장' 문 열어야 잘사니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점도 특기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 과제를 공유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특히 공정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정상화도 언급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정책 기조를 두고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며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격의 없는 소통을 강조하며 정치 복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와 오찬을 함께했고,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李대통령 첫 시정연설에 12번 박수 보낸 與… 野는 침묵 대응

李 대통령, 26일 국회 찾아 추경안 시정연설
약 18분 진행… 여, 12번 박수·야, 침묵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야당에서 규탄대회나 피케팅을 벌이거나, 고성·야유 등을 보내지 않아 여야 간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연설 도중 12번의 박수를 보낸 여당과 침묵을 유지한 야당의 모습은 상반됐다.

여야 모두 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기립했으나, 국민의힘 좌석 쪽에서는 박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7분께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입장 전부터 문 앞에서 일렬로 도열해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이 대통령을 힘껏 반겼다.

먼저 이 대통령은 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추미매·안규백(국방부 장관 후보자) 의원,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전현희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이어 같은 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겸 수석대변인, 김영호·한민수·노종면·문정복 등 서서 박수를 치던 수십명의 여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눈 후 연설대로 향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시정연설이 오전 10시 9분께부터 약 18분 동안 진행되는 동안, 여당 의원들은 총 12번의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침묵으로 일관했다.

'(외교에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돼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여당에서는 첫 번째 박수가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이 "감사하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반응이 없는데 쑥스러우니까"라고 말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웃음소리가 나왔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종일관 눈을 감고 있거나, 무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보기도 했다.

여당은 이후에도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다',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이다' 등 이 대통령 발언에 박수를 쳤다.

연설 도중 이 대통령이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발언하면서, 국민의힘 좌석이 일부 술렁이기도 했으나 고성이나 항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 27분께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시정연설을 끝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여야 의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눴다.

이후 본회의장 퇴장 전 국민의힘 자리를 먼저 찾아 악수와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이 다가오자 일제히 자리에 일어난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체로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앙대 선배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웃으며 악수한 뒤, 권 의원의 오른팔을 두드리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그냥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인사를 나눈 이 대통령은 다시 자신을 서서 기다리던 박홍근·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과도 인사를 나눴다.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정청래 의원들의 두 손을 맞잡게 하고, 이들의 어깨를 토닥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여당은 이날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친 오전 10시27분께부터 인사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퇴장할 때까지 연이어 박수를 보냈다.

한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 대통령 옆에서 사진을 찍으라는 권유에, "사진을 찍을 것이 아니라 (송미령) 장관의 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與 "김민석, 상당히 많은 자료 내… 주진우, 고발 검토"

"국힘, 패배 명백해져 청문회서 도망"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김 후보자가 상당한 자료를 제출해 소명했다고 강조하며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날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과 관련한 여야 간 신경전 끝에 중단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가 자동 산회돼 끝나 청문보고 채택 여부가 남겨져 있는데 야당에서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 안 해준 사례가 없다. 저희도 한덕수 전 총리 인사청문회 때 부적격 인사임에도 당론으로 추인해 줬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 인사청문회를 7시간 파행하고 자동 산회시킨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선 '대선 불복'"이라고 했다. 그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며 상대를 범죄자화, 악마화 만드는 패턴인데 이는 대단히 나쁜 정치"라며 "국민의힘이 전국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건 위원회에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합의가 어려우면 민주당은 인준 표결 수순을 갈 수 밖에 없다"며 "(인사청문 시한인) 오는 29일이 지나고, 채택도 안 되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처리는 오는 30일 또는 7월 3~4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소속 박균택 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자료를 최종적으로 받으면 더 이상 공격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패배하는 싸움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해야당이 도망을 간 청문회"라고 주장했다.

채현일 인청특위 위원은 전날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점수로 매겨 달라는 요청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95점 이상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냈고 소명을 했다"며 "다만 배우자, 전처, 자녀, 출입국기록, 자녀의 성적표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뉴시스